자연과 인간의 공존 ‘영산강 살리기’ 승촌·죽산보 설계 당선작 공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이 될 승촌보((洑·댐)와 죽산보는 나주 쌀과 영산강을 형상화한 유려하고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건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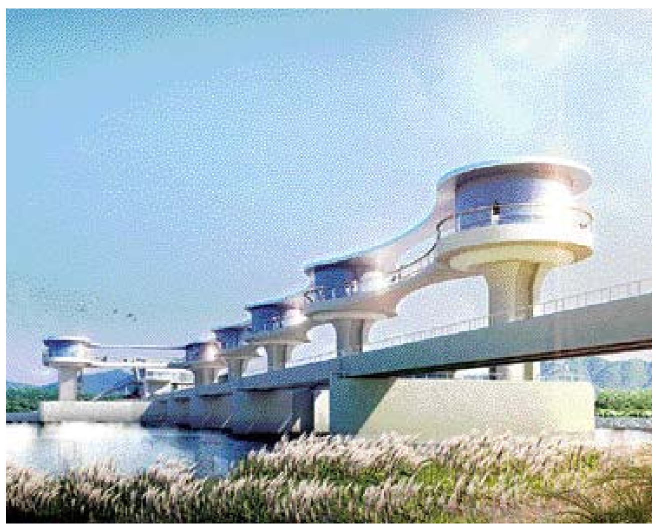
영산강 턴키 공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주)한양과 삼성중공업은 7일 승촌보와 죽산보의 설계 당선작을 각각 공개했다.

한양이 시공하는 6공구(서창지구)의 승촌보〈**사진 왼쪽**〉는 나주평야의 주 산물인 나주쌀과 영산강 주변에서 서식하는 물새알을 기본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름하여 ‘생명의 씨알’이다.

한양은 승촌보 5개의 기둥 위에 생명의 씨알을 배치하고, 동 서 남 북 중앙의 오방색(황,백, 적, 청, 흑) 조명을 가미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나주시 금천면~광주시 서구 치평동 구간(13.2㎞)과 광산구 송대동~서남동을 잇는 황룡강 구간(6.5㎞)의 Y자형 19.7㎞를 강을 따라 걷고 싶은 ‘수향 58리’로 조성한다. 나루터, 체험공원, 음식·문화공원 등이 곁들여진다.

삼성중공업이 시공하는 2공구의 죽산보〈**사진 오른쪽**〉는 다이나믹한 영산강 물을 형상화했다. 함평군 엄다면~나주시 다시면 12.29㎞에 이르는 이 구간에는 옥상 정원과 실내 정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도입해 관광 자원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들 구간의 공사는 9일부터 시작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포연 가득한 울돌목 13대 133 치열한 해상전투

▼412년 전 명량해전 승리로 풍전등화와도 같은 조국을 구해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호남 민초들을 기리는 명량대첩축제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돌목 일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명량대첩축제 해상전투 재현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미리보는 2009 명량대첩 축제

9일부터 3일간…명량해전 생생한 재현
상여꾼 700명 금세기 최고 만장행렬도

서기 1597년 음력 9월 16일. 조선의 운명이 걸린 결전의 날이 밝아왔다.

왜장 와키자카가 이끄는 350여 척의 일본 함대는 어란진에 진을 치고, 아침 일찍 4개 편대 133척의 함선을 울돌목으로 출격시켰다. 와키자카는 한산 앞바다에서 충무공에게 대패를 당하고 목숨마저 위태로운 경험을 했던 인물.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던 그는 이번엔 직접 나서지 않고 구루시마를 선봉장으로 내세웠다. 구루시마는 울돌목처럼 물살이 빠른 일본 시코구 미야고부 해협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왔던 명장이다.

하지만, 충무공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예견하고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판옥선 13척으로 10배가 넘는 대군을 상대해야 했던 장군은 노를 젓는 격군들을 격려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함선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켜 놓았다.

드디어 운명의 시각인 오시(11시)가 다가왔다. 133척의 왜선이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으로 나비떼처럼 몰려들었다.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한 울돌목 바다에 충무공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발진하라!” 진군의 쇠나팔이 세 번 울리자 조선 판옥선들은 울돌목의 거센 물살을 감당하지 못해 팔랑이는 일본 수군들 사이를 교묘한 조종술로 헤집어나갔다. 당황해하는 왜선들 사이에 일자(一字)로 늘어서는데 성공한 조선 수군들은 배의 양편에서 왜선들을 향해 일제히 함포사격을 퍼부었다.

일본 수군의 중심을 깨뜨린 조선 판옥선들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는 듯이 물살을 가르며 좌충우돌, 왜선들을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앉혔다.

이날 전투는 오전 오시(11시)부터 신시(오후 4시)까지 장장 5시간에 이르는 대역사였다. 충무공은 남해바다에서 승리를 거둔 뒤 서해를 돌아 한양에 진출하려는 133척의 일본 수군을 맞아 적선 31척을 침몰시키고 90척을 파손시켰다. 아군의 배는 단 1척도 잃지 않은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다. 이날의 대승리는 임진·정유 7년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며, 명량대첩은 세계역사에 불멸의 신화로 기록됐다.

세계 해전사에서 빛나는 승리로 전해지고 있는 명량대첩이 축제로 되살아 난다.

전남도는 412년 전 명량해전의 승리를 통해 풍전등화 신세였던 조국을 구해낸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호남 민초의 승리를 기리기 위해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울돌목을 비롯한 진도대교 일대에서 ‘명량대첩 축제’를 개최한다.

명량대첩 축제에서는 최고 하이라이트로서 당시의 치열했던 명량해전 상황을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재현한다.

역사의 현장 울돌목 바다에서 일본선 90여 척이 동원되고 조선수군 13척이 옛 모습을 그대로 재드러낸다. 벽파진에서 피어오르는 봉화를 신호로 육상과 바다에서 ‘명량해전 13대 133’이 초대형 뮤지컬처럼 펼쳐진다.

영화 ‘해운대’에 출연했던 스턴트맨들이 배 위에서 전투를 하고, 영화 ‘신기전’에서 폭파 효과를 담당했던 특수효과팀들이 실제 배가 불타고, 화살이 쏟아지며, 대포가 발사되는 장면들을 실감나게 연출한다.

이어 11일에는 상여 5기를 앞세우고 만장 500여 장이 뒤를 따르는 금세기 최고의 ‘만장행렬’이 진도대교에서 진행된다. 상여꾼만 700여 명이며, 관광객들이 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500여 장의 만장이 따로 준비됐다.

이 밖에도 야간에는 진도대교에서 오색풍등을 날리는 추억체험이 마련돼있으며, 열기구에서 진도대교의 아름다운 풍광 감상하기, 신호연 날리기, 로봇 바이크타기, 조랑말타기 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한·중·일 참전 장군 후손들 손 맞잡고 화합·평화 기원

의병 후손들·日 관광객 1천여명도 동참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명량대첩 축제에 412년 전 당시 해전에 참가했던 한·중·일 장군들과 해남·진도 의병들의 후손이 참석해 화합과 평화를 기원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5시 명량해전 재현행사 직후 진도대교에서 당시 전란에 참여했던 한·중·일 각 당사자의 후손들이 평화를 기원하는 뜻으로 3기의 상여를 들고 명량해협에 국화꽃을 바치는 헌화의식을 갖는다.

평화기원 헌화에는 이순신 장군과 해남·진도지역 의병 오극신·마하수·양응지의 후손, 명나라 장수로 강진 고금도에서 이순신과 함께 공을 세운 중국 진린 장군의 후손 진방식 임진전란연구소장 등 일행이 참여한다.

특히 명량해전 당시 왜군 장수였던 구루시마 장군의 현창회 사무국장 무라세 마키오씨 등 현창회원들과 일본 관광객 1천여 명도 평화기원 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거론된 민초들의 후손도 함께 초대돼 명량대첩의 의의를 다시 새기는 자리도 마련한다.

주동식 전남도 문화관광국장은 “과거의 전쟁을 뒤로하고 앞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헌화식을 준비했다”며 “명량축제 중 가장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